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北인권유린 실태 강력 비판

북송 위협 탈북자 증가와 공개처형·고문 등 끔찍한 실상 상세 기술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최신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현지 시간) 발간된 보고서는 "북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런 살인은 당국의 통치와 통제 수단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어떤 불만도 표출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고문

노동을 하거나 총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선 탈북 시도, 김일성 부자 관련 발언, 초상화 훼손 등이 정치범죄로 간주된다며 가혹한 처벌 실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 재개방 상황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도 자세히 다뤘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기

간 국경 간 여행 제한을 완화하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이 재개됐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10월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최대 600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송환 시 고문, 성적 학대, 강제노동, 즉결 처형 등에 시달릴 위험이 있는 망명 신청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경 재개방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은 코로나19 기간 줄어들었던 공개처형이 국경 개방과 함께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9월 국가재

산 판매 혐의로 9명에 대한 공개 처형을 진행했으며, 당시 주민 2만5천여 명이 이를 지켜보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국무부는 3년 연속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사례도 거론했다.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등으로 이들 중 일부는 10년 넘게 북한에 감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관련 소식도 담았다. 지난해 9월 현재가 이 법에 대해 위원 결정을 내렸으며, 5월 대법원도 문제의 정부 관련 단체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발표 행사에서 안토니 블린컨 국무장관은 보고서가 약 200개국의 인권실태를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했다며,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인권 침해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우려 사안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은혜 기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중 포로·실종자 잊지 말자”



한교연 제13-2차 임원회가 23일 진행됐다. ©한교연

한교연, '리멤버투게더' 사업 추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23일 오전 제13-2차 임원회를 열고 리멤버투게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중요 안건을 처리했다.

리멤버투게더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중 북한에 포로로 잡혔거나 실종된 이들을 한국교회가 잊지 않고 기도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한교연은 '리멤버투게더'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 또는 실종자로 처리돼 생사를 알지 못하는 미군 병사 가족들의 애라는 마음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일체의 사업을 맡기로 했다. 특별위는 이를 위해 6월 중에 미국 주요 도시에서 기도회 및 위로회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보훈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참전 실종자의 손자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고 해당 주한미군 병사 가족의 협조를 받아 실종자의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사진을 넣은 기념패를 제작해 6월 중에 가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원회에서는 기독교다운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국방부 의장대 사열에 한교연 임원들과 회원 교단들이 적극 참여해 격려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총회장 양태화 목사)의 교단 분리 청원 건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임마누엘선교) 총회로 명칭 변경 건을 각각 하락했다.

한편 한교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0일 오전에 미혼모자 가정생활 보호시설인 '꿈나무'(원장 박미자 권사)를 방문하기로 하고 회원 교단의 후원을 요청했다. 꿈나무는 미혼모로 홀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설로 미혼모가 1~6세의 아동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다니엘을 꿈꾸는 청년들의 기도 '우리는 주님의 것'

2024 청년다니엘기도회, 약 3,600개 교회 참여 속 22~26일 진행

청년들의 다니엘기도회, '2024 청년다니엘기도회'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매일 저녁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담임 주경훈 목사)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이 기도회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다니엘기도회의 청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되는 청년다니엘기도회는 이 시대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 부흥을 위해 예배, 연합 등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시작했다. 올해 약 3,600개 교회가 참여했다.

첫날 오후 7시 개인 기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오륜교회 랩밴드워십팀이 인도한 찬양으로 본격 문을 열었다. 청년들은 '햇살보다 밝게광되신 주 앞에', '주 사랑 놀라워, 나는 노래하네, '갈급한 내 맘', '주는 존귀하신 분' 등의 곡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날 말씀은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담임)가 "나는 누구인가(고린도전서 4:3-4)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목사는故 팀 켈러 목사의 책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의 내용을 토대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질문에 대한 과거와 현대의 세계관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나는 누구의 것인가와 같은 것"이라며 "과거의 세계관에서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사회, 국가의 것이었고, 현대의 세계관에서 나는 나의 것"이라고 했다.

즉, 과거 시대 우리는 우리의 성별이나 속한 집안, 혹은 지위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된다. 남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그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야



2024 청년다니엘기도회가 22일 저녁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다고 말한다.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사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남에 의한 것도 자신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린도전서 4:3-4)

이 목사는 "사도 바울은 남도 나도 아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나라고 말한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라며 "과거는 나는 남의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나는 나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버린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것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 갈 것"이라며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청년들은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설립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의 인도에 따라 이날 선포된 말씀을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청년다니엘기도회는 23일 가수 송지은, 24일 박광리 목사(우리는교회), 25일 주성하 목사(DNA미니스트리 총괄디렉터, 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26일 유튜브버 하준파파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계속된다. 이 기간 찬양은 피아(FIA)워십, 전은주 예배인도자, 팀루크(Team Luko)워십, 아이지야 씨스타워십이 각각 인도한다.

김진영 기자

직장선교 6대 기관 '직장선교센터' 봉헌 >> 7면

김진연 단장 "예배의 영적 흐름을 읽어라" >> 22면

4중 초역세권 8천만원대 병원 분양 공고

* 전금대출 70% 가능, 실무자금 기준

◆ 공급내역

- 공급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05-15, 31번지
- 대지면적 / 연면적: 1,770.80㎡ / 22,733.94㎡
- 공급규모: 지하5층 - 지상 18층 1개동
- 준공예정월 / 입주예정월: 2025년 04월 준공예정 / 2025년 07월 입주예정

◆ 청약 접수 방법

구분	내용
청약 접수금	1,000,000 원 (일백만원)
입금은행	신한은행
입금계좌	100-036-164642
입금방법	무통장입금 (청약 호실, 청약자이름) 예시] 601호 홍길동 or 601호길동
주의사항	입금 후 반드시 대표번호로 호실 확정 문의 바랍니다.

◆ 청약 관련 주요사항 및 유의사항

- 공급대상은 호실별로 청약금 입금순으로 분양 마감 됩니다.
- 청약 가능 호실 및 구비서류는 대표번호로 확인 바랍니다.
- 청약금의 환불은 환불신청서,필요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 진행됩니다.

◆ 공급대상

층	분양구좌 (호실)	과목별 분양 면적	입점 과목
3층	3실 (호실 문외)	275.74㎡	이비인후과 입점 예정
	5실 (호실 문외)	371.77㎡	한의원 입점 예정
	5실 (호실 문외)	316.63㎡	치과 입점 예정
	6실 (호실 문외)	276.20㎡	안과 입점 예정
4층	3실 (호실 문외)	275.74㎡	소아청소년과 입점 예정
	5실 (호실 문외)	371.77㎡	정형외과 입점 예정
	4실 (호실 문외)	212.73㎡	기정외과와 입점 예정
5층	7실 (호실 문외)	380.10㎡	재활의학과 입점 예정
	3실 (호실 문외)	275.74㎡	산부인과 입점 예정
	6실 (호실 문외)	421.88㎡	성형외과 입점 예정
	5실 (호실 문외)	316.86㎡	피부과 입점 예정
6층	5실 (호실 문외)	225.85㎡	비뇨기과 입점 예정
	19실 (6층 전체)	1,240.33㎡	웰니스 건강검진센터 입점 확정
7층	19실 (7층 전체)	1,240.33㎡	

* 상가입점 과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사항으로 실제 입점 과목(대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자 한정 혜택 (계약 시)

구분	내용
①	계약금 10% → 계약금 0원
②	준공시까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③	시세하락시 환매 보장 (안심보장증서 제공)

◆ 예상 수익률 (예시)

호실	514호	전용면적	7.74평
계약금	0원	청약접수자 혜택 적용시	
실투자금	80,587,582원	잔금 30% - (부가세+예상보증금)	
연임대수입	14,862,382원	인근 임대시세 X 7.74평	
실수익금	7,511,269원	연 임대수입 - 대출이자 (연3%가정)	
수익률	9.32% 실투자금 ÷ 연간 실수익금		

* 본 수익률은 예상수익률로 계약시 개런션비용 및 대출기금, 대출이자, 관리상환비, 기타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호선 | 월곡관교 노선 (2023년 예정) | 동탄인덕원 노선 (2023년 예정) | GTX-C 노선 (2023년 예정)

인덕원 컴팩트시티 랜드마크 타워 최초분양!
4중역세권 인덕원역 초역세권 프리미엄!

청약문의 1877-9830